



**양현미**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전)세계이동통신협회 최고전략책임자)

2018. 11. 1(목) 16:30  
종합관 101호(대강당)

# 인공지능 임팩트: 파괴를 통한 창조 시대, 그 물결에 올라타라!



이주  
강화

Ajou Lecture Vol.379



## 양현미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전)세계이동통신협회 최고전략책임자)

## 이력

양현미 박사는 지난 5년간 GSMA (세계이동통신협회)에서 부총장급인 Chief Strategy Officer로 활약하며 세계 통신 산업계의 미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전세계 800여개 통신사들과 그 인접 산업군들과의 협력을 주도하여, 4차 산업 혁명에서 통신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GSMA는 세계 최대의 IT행사인 Mobile World Congress를 주관하며 통신 표준 및 IT의 트렌드를 이끌고, 세계 220여개국의 정부 및 규제기관들에 통신업계를 대변한다.

GSMA 부임 전, 양현미 박사는 한국 최대 통신사인 KT 전무로 재직하며 전략 기획, 마케팅, 고객관리 등을 총괄하고, 특히 국내 통신사 최초로 금융-통신 융합 부문, 빅데이터 부문 등을 신설함으로써 통신산업의 선진화를 주도하였다. KT 부임 전, 신한은행에서 마케팅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미국 American Express 뉴욕 본사에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마케팅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리스크관리 전문가 등으로 활약했다.

전통적으로 고위직 여성 임원이 극히 드문 금융과 통신 산업계에서, 양박사는 국내 통신사와 은행 업계에 최초로 유리천장을 깬 여성 전문가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한, GSMA 영국 본사에 부임할 때에는 최초의 동양인이자 최초의 여성임원으로 발탁되어 세계 각국의 뉴스가 되기도 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객원교수로 재직 중인 양현미박사는 서울대학교 수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그리고 뉴욕주립대에서 응용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 인공지능 임팩트:

## 파괴를 통한 창조 시대, 그 물결에 올라타라!



2016년 다보스포럼 이래 전세계는 4차산업혁명이란 표현을 너무나도 쉽게 피상적으로 써왔다. 그러나 이 가벼워보이는 표현 이면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사실들, 즉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파괴와 재창조가 조용히, 하지만 급속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이런 현상의 근간에는 ‘인공지능’ 이라는, 수십년 묵은 개념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맹활약을 시작한 기술이 있다. 기득권을 가진 거대 기업들은 그들 특유의 무거운 몸체와 거만함으로 인해 가볍고 발빠른 신생 사업자들이 이루는 집단 생태계에서 소외되어 서서히 무너져 갈 것이다. 인공지능의 활약으로 재편되는 세계 산업의 생태계에서 어떤 이들은 할 일을 잃어 망연자실해 질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날개를 단 듯 훨훨 날아 오를 것이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성공하는 인재상은 이 전 시대의 인재상과는 확연히 다르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 해야 이 새로운 물결에 올라타고 성공하는 인재가 될 수 있을까?

